국가장학금 신청 SKY 절반 고소득층

지역거점 국립대보다 1.5배 많아
전남대 신청자 30.2% 고소득층
父 재산 입시 영향 교육격차 심화

이른바 '스카이'(SKY)로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다니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보다 1.5배나 많아 부(富)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계층 비율을 분석한 결과 'SKY대학'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SKY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3만4646명 중 48.2%인 1만6710명이 소득분위 9~10등급(상위 20%)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 중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414명 중 5478명(52.6%)에 해당했다. 고려대·연세대 또한 각각 50.9%, 40.4%가 고소득층이었다.

김 의원 측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보면 각 학교 재학생들의 소득 분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고소득층은 구태여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고소득층 비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광주·전남 등 지역 대학에서는 고소득층 비율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남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1만4860명 중 4488명인, 30.2%만이 고소득층이었다. 이어 중위권은 6159명(41.45%), 하위권은 3868명(26.03%)을 차지했다.

전남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9개 거점국립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11만5863명이며, 이 중 고소득층은 3만7762명(32.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재산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SKY대학에 보다 쉽게 입학하는 등 교육계에서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SKY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층 이동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년만에 열린 즐거운 축제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이후 3년여만인 11일 오후 열린 호남대학교 축제에서 무대를 관람하고 있는 학생들이 환호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광주시 미신청자 5만여명 대상
신청기간 연장…4월15일 마감

광주시는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장신청을 오는 15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광주시 주민등록 내국인과 체류지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전체 시민의 96.3%(141만4694명)에게 지급했다.

시는 높은 지급률에도 코로나19 자가치료, 직장 형편 등의 사유로 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이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미신청자(5만4795명)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시는 연장 신청이 시작된 3월 21일 이후 지난 8일 기준 8966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상태다.

아직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방문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선불형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연장 신청기간에 지급받은 일상회복지원금은 당초 신청기간에 지급한 지원금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모든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미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연장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철거 위기 광주 동구 고택 '마을 사랑방' 인기

개관 3개월 '동구 인문학당'
음악여행·기후밥상 운영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광주시 동구 고택이 마을 사랑방으로 탈바꿈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1930년대 지어진 근대가옥을 리모델링 한 '동구 인문학당'이 올 1월 정식 개관 이후 3개월을 맞았다. 인문학당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사랑방이다. 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인문 프로그램, 음식, 영화, 차(茶) 등 다방면의 창작·교류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문학당은 근대가옥을 개보수한 본채, 새로 증축한 인문관, 공유부엌, 정원으로 이뤄졌다. 전시공간, 강연장, 다실 등으로 이용된다.

동구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다락방 음악여행 ▲기후밥상 ▲영화인문학 극장 ▲동구다실 ▲동네명인1-영흥식당 ▲동네명인2-전통한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동구 인문학당' 내부 모습.

동구 관계자는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인 '동구 인문학당'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인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상반기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내 5·18사적지에 18일부터 해설사 배치

전문 해설 프로그램 운영
역사 바로 아는 계기될 것

전남도가 지역 5·18항쟁사를 알리고 5·18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관련 사적지에 대한 전문적인 역사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18사적지를 찾는 도민과 지역 청소년, 관광객에게 전남의 5·18을 상세히 설명해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됐으나 전남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장소가 전남에 산재해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선정해 도내 8개 시·군 25개소를 '전남도 5·18사적지'로 지정, 정비했다. 2021년에는 해설사 18명을 양성했다.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하면 해설사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면 해당 시·군으로 답사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8개의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0명당 해설사 1명을 지원하며, 신청자와 해설사가 일정과 해설코스, 순서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시·군별 해설코스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남도 자치행정과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구례·곡성·순창·담양 100세 건강상태 조사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이 구례·곡성·담양·전북 순창(구·곡·순·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을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연구조사를 한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와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은 최근 '2022년 구·곡·순·담 중심 백세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연구조사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연구를 추적 조사하고, 어르신들의 식사패턴,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등을 조사하게 된다.

건강과 장수에 대한 개인적 특성 및 생활환경인자와의 관련성도 규명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 대책 및 건강정책 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사단은 백세인 연구의 대가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의과대학 박광성·윤경철·신민호·조형호·한재영·강민구·전민 교수와 생활과학대학 이정화 교수, 간호대학 김정선·안민정 교수, 식품영양학부 박용주 교수, 인문학연구소 오영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